



ИЛЪЧИ

БИРИМДИК
ЕДИНСТВО

의 집

№1 (246)

30 января
2019 г.

ИГРЫ У ЁЛ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ОККР и друзья объединения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28 декабря на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Гостям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прийти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в спортивной одежде и взять с собой сменную обувь.

ст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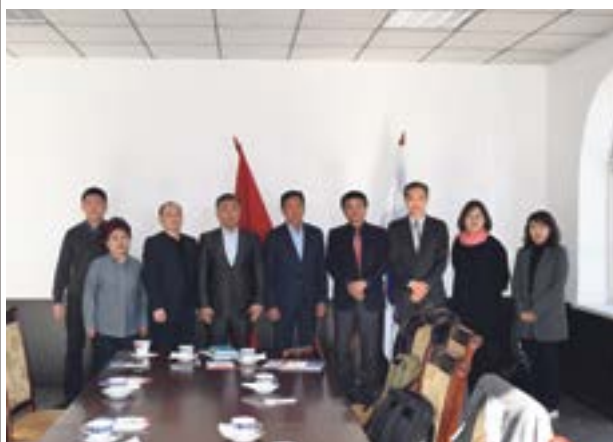
Поём на корейском



1 декабря в НЦДЮ «Сейтек» прошел конкурс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Моксори»

стр. 2

Встреча с коре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18 января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руководства ООККР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Хан В. Н.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ву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стр. 5

Мин Дже Щик:
Хочу вернуться в Кыргызстан со своими учениками



На днях свое пребывание в Кыргызстане заканчивает глава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Бишкеке господин Мин Дже Щик.

стр. 6

Вступайте в SmArt YouZ

Как известно, будущее - за молодым поколением! И очень важно то, какие ценности и принципы мы сегодня вложим в молодежь.

Читателям газеты «Ильчи» хотелось бы рассказать о Молодежном движении корейцев в Кыргызстане SmArt YouZ.

Наши основные ценности: трудолюбие, честност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гуманизм, инициативность. Нашей миссией является объединение молодежи путем нетворкинга в органическую среду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воего потенциала и развития участников клуба.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много талантов и мы хотим, чтобы каждый раскрыл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и нашел свое призвание. В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может вступить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если он соответствует следующим критериям: возраст (16-28 л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кореец или кореянка (метис).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 иметь желани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еобходимо зайти на сайт smart-youz.kg,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и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вас добавят в группу в Telegram. Как только вы вступаете, к вам прикрепляется ментор, который информирует вас и помогает вам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резидентом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SmArt YouZ яв-

ляется Хан Антон Юрьевич. Президент избирается на один год. Так же, хотелось бы упомянуть нашего куратора и наставника –

Проводятся тренинги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от бизнеса до духовного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Чен Владислав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У вас, наверняка, возник вопрос: «Что я от этого получу?» Объясняем... Наше движение устраивает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мероприятий в самых различ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Это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гра в футбол, баскетбол, волейбол.

Организуютс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акции и участие в волонтерских поездках в детские интернаты и дом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Также мы проводим мастер классы,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ечеринки, торжественные ужины и это еще не все. У нас налажены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вязи с Казахстаном, Россией, Узбекистаном, Укра-

иной. И эт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орумах.

К примеру, с 22 ноября по 24 ноября проходил форум в Алматы,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Молодежным движением Казахстана. От нашей страны участвовали пя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невероятные эмоции, новые идеи и вдохновение. Так же мы проводим ежегод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на побережье озера Иссык-Куль. В 2018 году он проходил в пансионате «Радуга West», приезжали участники нескольких стран, с которыми ведет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роме того, 1 декабря 2018 года мы провели масштабный конкурс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Идея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а предложена Чрезвычайным и Полномочным Послом Кореи в КР, а спонсорство было оказано Фондо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У н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советы, рекомендации и поддержку от клуб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Бишкек Форум».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у нас приобретает бесценный опы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друзей, развивает в себе лидерские качества,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крыть свой внутренний потенциал.

Текст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Хан

«Моксори» называет лучших!



1 декабря в НЦДЮ «Сейтек» прошел конкурс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Моксори», к которому молодежный клуб SmArt YouZ готовился больше месяца.

Идея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надлежит Чрезвычайному и Полномочному Посл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Идейным вдохновителем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 вице-президент ООККР Владислав Чен. Спонсорскую поддержку оказал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так же поддержали: бренд корейской косметики «The Saem», магазин корейской продукции «Кимчи», кондитерский магазин

«Наша марка», а так же рестораны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Каннам» и «КенБок-Кун». В жюри выступили замечательные народные певцы Кыргызстана: Аяна Касымова и Жийдеш Идирисова, а так же Ли Ен Хи -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дирижер.

Конкурс был уникален тем, что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нем могли все желающие, несмотря на возраст, пол и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два тура. Первый этап проводился в Корейском народном доме. Из более 40 участников строгое жюри отобрало тринадцать самых талантливых конкурсантов.

Все были очень удивлены, когда увидели, сколько же талантливых людей в нашем городе могут исполнять песн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различных жанрах! Жюри было сложно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но в итоге были выбраны лучшие из лучших: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 Ли Со Джун. Своим выступлением он хотел показать людям, что мюзикл может быть интересным и ему это удалось.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 дуэт Романа Ким и Екатерины Абишевой. А третье место заняла Алиса, которая исполнила песню под гитару.

Все остальны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от спонсоров ценные призы и подарки.

Для нас это был первый масштабный проект подобного формата. Сам процесс подготовки потребовал много усилий и времени, н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опыт, который мы получили, можно назвать бесценным.



Текст подготовила Юлия Лим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생일 축하합니다!

Поздравляем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ООККР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Кан Людмила Алексеевна (10 декабря),
Мун Александр Владимирович (14 декабря),
Чен Герман Владимирович (16 декабря)
Шерикулова Минара Анарбековна (16 декабря)
Ним Светлана Петровна (18 декабря)
Хон Лариса Геннадьевна (23 декабря)
Ан Александр Дон-Манович (1 января)

6 февраля в ресторане
«ЗОЛОТОЙ ДРАКОН»
состоится празднование

«СОЛЬНАЛЬ»

Начало мероприятия
в 17.00.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обращаться в офис
ООККР по тел. 0312
664398 или 0553 650366.

민재식: 한국의 학생들 하고 키르기스스탄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교육은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외에 언어를 보존하는데 있어 비취켄 한국교육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취켄 한국교육원 민재식 원장님께서 임기가 끝나고 곧 한국에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비취켄 한국교육원에 대해 말씀 드리고 한국교육원 원장님께 키르기스스탄에 오신 후 비취켄의 첫 인상과 생활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원에서 진행하신 것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우리 고려인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해서 키르기스스탄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우선 우리 한국교육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사실 저는 재외 동포 교육에 관심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우리 한국 교육원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18국에 41 개의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도 있지만 전혀 잘 모르는 나라,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나라 크기에 비해서 우리 고려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거 벌써 3년 전이네요.

-키르기스스탄은 어떤 인상을 줬으며, 적응 기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여기는 저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2016년 2월에 여기 키르기스스탄에 와서 고려인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원장으로서 근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다.

-교육원에서 어떤 강좌가 있습니까?

-우리 고려인 분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더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원 강좌에 고려인 초등학생 반을 새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 손을 잡고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그런 고려인을 볼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히 대학생들이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한국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육원에 고려인 수강생 비율은 10% 넘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온 이후로 고려인 분들을 만났을 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교육원에 대해:

-우리 교육원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어 강좌와 한국문화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부 합해서 50개 반입니다. 이번에 1670명이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어 강좌인데 한국어 초급·중급·고급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이 있습니다. 한국문화 강좌로는 한국무용, 태권도, 사물놀이(고려인 회관에서 이뤄지고 있음), 컴퓨터 강좌가 있는데 컴퓨터 강좌는 우리 교육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원에서의 모든 강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할 때가 되면 2-3일 만에 대부분의 강좌는 마감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원이 좀 더 시설이 커져서 더 많은 수강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우리 교육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 키르기스스탄에서 학교 61개 하고 대학교 19개에서 한국어 강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대학생 또 학부모 모두가 한국의 장학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우수한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키는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원생을 선발하는 프로그램 학부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습니까?

-희망한 학생을 다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학생만 선발합니다. 첫 번째,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장학생으로 공부한 이후에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 활동, 사회 활동, 학업 계획 및 자기 소개서가 중요합니다. 어학 실력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장학 프로그램 외에도 학교별로 장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교육원에 한국에 있는 인하 대학교가 방문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자

비로 유학을 가고 그중 일부 학생들은 인하대에서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매년 장학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원은 몇 명입니까?

-장학생 인원 배정은 국가에서 정합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대학원생 12명, 학부생 2명을 받았습니다. 정원이 적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구가 많은 다른 나라 비해서 정원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장학생 선발에 합격한 대학원생은 9월 학기에 학부생은 3월 학기에 입학하게 됩니다.

-고려인들을 위해서만 있는 정원입니까?

-전체 정원 중에서 고려인들만을 위한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장학생을 뽑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정보를 우리 교육원의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리고 교육원 1층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려인협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앞으로 «일치» 신문에도 발행할 것입니다.

-장학 프로그램에 자격이 맞지 않아도 한국에 유학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원에서 상담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언제든지 상담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봐야 됩니다. 꼭 서울에만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도 좋은 대학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가려는 대학의 정보를 찾고 교육원에 와서 상담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상담이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현지인 문화, 경제, 정치를 잘 아시겠습니까. 원장님 생각에 앞으로 어떤 직업이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보통 많은 학생들은 경영학과나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합니다. 저는 과를 선택하기전에 먼저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찾아 나가야 합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관광 산업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여행을 가면 보통 유명한 나라를 찾아갔다면 요즘은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가서 자연을 보고 느끼며 그 안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등산이나 승마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졌고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에 제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한국의 큰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원장님의 가족은 설날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한국에 가장 큰 명절은 설날 하고 추석입니다. 우리 가족은 집에서 떡국을 꼭 먹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한국처럼 설날이 휴일이 아니라 교육원 근무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특정 학교들에서 특별한 설날 문화 축제를 즐기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저는 20년동안 영어 교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교육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학교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학생들 하고 가까이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데리고 키르기스스탄에 와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 정부와 한국교육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원이 교육 분야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교육원 민재식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새로운 근무 자리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키르기스스탄에서 원장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치» 신문은 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방문기자 김 울리아



Спортивный «Новый год» !

У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Кыргызстана есть добрая традиция - проводить яр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одя Старый год и встречая Новый. Но на этот раз праздник прошел в необычном формате.



В нашей стране идет настоящий бум по ведению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и поэтому было реше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данное событие в спортивном сти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ОККР и друзья объединения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28 декабря в известном фитнес-центр «Maximum».

Гостям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прийти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в спортивной одежде и взять с собой сменную обувь. Приглашенные собирались в зале бокса, а затем уже рассредоточились по всему клубу. Пока совершались последние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обравшиеся обсудили самые яркие моменты прошедшего года, и поделились планами на 2019 год. Главное было не забыть опустить номер лотерейного билета в лототрон, ведь в конце мероприятия всех



ждал розыгрыш ценных призов. В качестве ведущего выступил Дмитрий Пак.

Праздничную программу открыло выступление арти-

стов ООККР. Народный ансамбль «Маннам» подарил всем собравшимся динамичный номер на барабанах. Собравшихся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президент ООККР Хан Вячеслав Николаевич и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Р господин Ха Тэ Ёк. В числе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был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Бишкеке господин Мин Дже Щик, секретарь Посольства господин Джон Хан Хо, 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госпожа Ким Хён Джонг, бизнесм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ыргызстана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о ООККР, а поддержали праздник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спонсоры: бизнес-центр «Maximum», Фитнес-центр «Maximum», сеть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Sun & Co, Raduga West resort center, ресторан Чон Ги Ва, сеть кафе Ассорти Бухара, сеть кафе «Кореана», ресторан «Kim's», ОАО «Таш-Темир»,

транспортная компания «Crona Trans» и другие.

И.о.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ыргызстана Зухра



Шидакова и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немцев КР Валерий Диль вручили президенту ООККР Вячеславу Николаевичу Хан почетную грамот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Людмиле Пяк и Людмиле Ким были вручены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Ассамбле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родный ансамбль ООККР «Маннам» подарил всем танец, организаторы рассказали всем о спортивных планах на ближайшие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Главной задачей участников являлось - завоевание мак-

сималь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медалей по различным дисциплина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суперприз. Для полноты ощущения и эмоций на экране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сь ролики. Медали разыгрывались в следующи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17-30, 30-50, 50+ лет.

Активную поддержку мероприятия оказывал тренерский состав клуба:

Zumba –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й тренер по программе зумба-фитнес - Элли Рансом, Cycle – призер менфизикс -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ченко, многоборье – мастер спорта КР по троеборью Аслан Жаникаев, мастер спорта КР по тяжелой атлетике Сергей Комышев, чемпионка по бодифитнесу Виктория Сафина. В настольном теннисе помогал судить Владимир Кан, а в плавании – мастер спорта КР по плаванию, тренер по аква-аэробике Ольга Бойко.



Соревнования «Мама, папа, я – спортивная семья» проводил мастер спорта КР по спортивной гимнастике Роман Дедковский. Также активно помогал тренер по флай-фитнесу Любовь Колесникова. Настроение собравшимся также поднимала детский аниматор фитнес-клуба «MAXIMUM» Айзада Асанова. А пока шло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анд, спортивный настрой подарила команда «Дримлайт».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мероприятии был задействован каждый гость. Ведь для приглашенных, не принимающих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был устроен сэлфи конкурс с хэштегом (#maximumbishkek). Победитель этого конкурса, собравший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лайков, был награжден в финале праздника ценным подарком. Участники разошлись по залам и спортивное веселье началось.

Гости перетягивали канат, прыгали на скакалке, плавали, уча-

ствовали в эстафете, выполняли вис 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эстафетах. Празднич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водились в залах: zumba (зал аэробики), cycle (зал Cycle), многоборье (зал фитнеса), настольный теннис (зал аэробики), плавание (бассейн), «Мама, папа, я – спортивная семья» (зал бокса). Вс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параллельн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тренеров. Но можно было следить за всем происходящим на экране, где транслировались моменты соревнований из других залов.

Определяли победителей тренеры и судьи, а праздн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дарил Дед Мороз и Снегурочка.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отняли немало энергии, так что можно было подкрепиться на Новогоднем фуршете. Кроме того, проводились интеракти-



вы на экране - «Красивый с бородой» и «Сказки в смайлах». Праздн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к великому удивлению поддержали поздравления звезд эстрады и глав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стран СНГ,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ы на большом экране. По традиции,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здоровья всем собравшимся пожелала известная певица Анита Цой и известный спортсмен Костя Дзю.

Встреча с коре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В Корейском народном доме 18 января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руководств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Вячеславом Николаевичем Хан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ву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BRAINPARK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господин Пак Донг Ван) и MDK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господин Чу Санг Хун).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и было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От ООККР на встрече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ервый вице-президент,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Артур Николаевич Пак, штатный вице-президент Надежда Васильевна Ким, помощник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 Сергеевич Кан и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Ильчи» Юрий Ким. Целью данной встречи явилось знакомство делегации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и деятельностью ООККР, а также

обсужд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е 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Гости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и о цели своего визита в нашу страну. Кроме того, их интересовал вопрос, в каких сферах заняты корейцы в Кыргызстане.

Господин Пак Донг Ван рассказал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воей компании и планах на будущее.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компания BRAINPARK занимается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консалтинговых услуг и разработкой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реализуются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и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реи и фондов.

Компания MDK занимается медицинским туризмом и изданием русскоязычной газеты «Медиа Кор» в Кореи, о чем поведал господин Чу Санг Хун.

В Кыргызстан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организации KOICA планируется осуществить ряд проект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улучше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увеличение доходов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путем привлечения туристов не только из Кореи, а также из Европы и других стран. Второе направление - это привлечение студентов в Кыргызстан. А для э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работать тур по ознакомлению с жизнью, бытом, культурой и историей корё-сарам, проживающих в Кыргызстане. Приглашенные студенты посетят места массового проживания местны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побывают в семьях и школах. Конечно же, ООКК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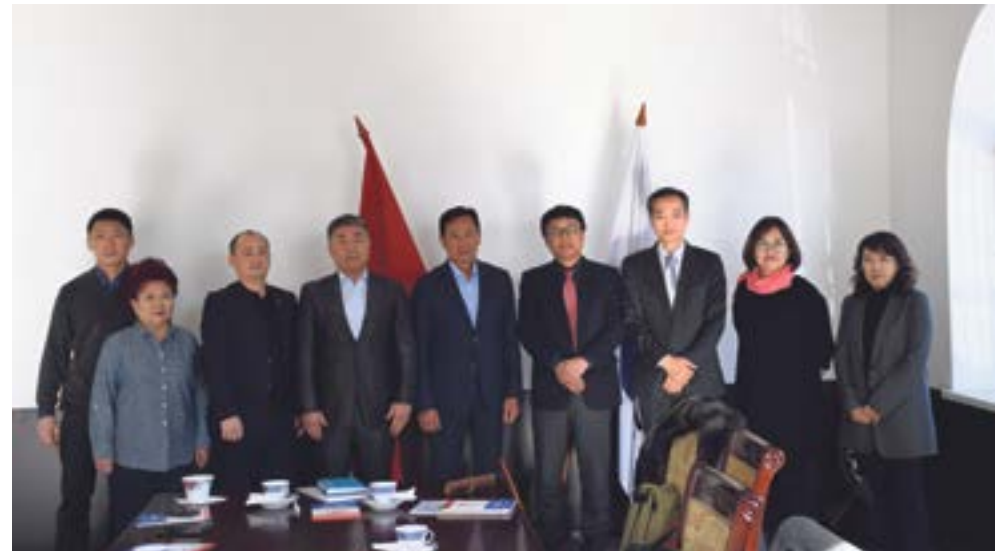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 встреч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КР поделились планами на будущее и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2019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ряда мероприятий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Р, а также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если у гостей появится желание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данных проектах или предложат новые идеи, мы будем только рады та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ячеслав Николаевич ответил

на все интересующие вопросы и рассказал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ОККР и проектах. Он также сообщил, что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Кыргызстане, работают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сферах, в том числе ресторанном и гостиничном бизнесе, строительстве, туризме и добились значительных успехов и готовы к плодотворным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м.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решили нач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бмениваться опытом и оказывать взаимную помощь, а также осуществлять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укреп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нформацию подготовил Юрий Ким.

В завершении вечера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соревнований, а также была разыграна лотерея - 24 лота. Счастливыми оказались Олег Анатольевич Тянь, Александр Анатольевич Ким, Зоя Исоновна Пак, Екатерина Борисовна Югай и Наталья Алексеевна Цой. Они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ями поездки на Иссык-Куль, где смогли встретить Новый 2019 год.

Праздник завершился поздравлением президент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Кыргызстана Вячеслава Николаевича Хан и вручением подарков. Дети насладились сладкими сюрпризами, а взрослые получили красочные календари.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медалями и дипломами. Довольные гости расходились по домам, получив заряд бодрости, спортивной энергии и массу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Пак Зоя Исоновна:

- Хотелось бы сказать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за поездку на Иссык-Куль.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Игры у Елки» я выиграла счастливый лотерейный билет совершенно случайно и мне так повезло! Впечатления от поездки у меня очень яркие. Отдохнула на 100 процентов.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ись хорошие номера и отлич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Такая чистота вокруг. Было просто прекрасно! Я очень довольна.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хотелось бы сказать Вячеславу Николаевичу Хан за та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Мы прекрасно провели празднование Нового года. Столько радости - просто не передать словами! 2018 год для меня был очень удачным, ведь у меня родилась внучка. Также по программе я побывала в Кореи и теперь вот Новый год встретила на побережье озера Иссык-Куль.



Мин Дже Шик: Хотелось бы вернуться в Кыргызстан со своими учениками!

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нас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в нашей жизни. Особенный интерес пред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омную роль в сохранении культуры и изучении языка в столице играет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Бишкеке. На днях свое пребывание заканчивает его глава – господин Мин Дже Шик. И сегодня, мы бы хотели рассказать читателям газеты «Ильчи» подробнее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данного центра, и узнать о его впечатлениях полученных за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и планах на будущее. Кроме того, мы расскажем об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ах для местных корейцев.

- Господин, Мин Дже Шик,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м бы хотелось узнать, как вы оказались в Кыргызстане и с чего все начиналось?

-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телось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ас за проявленный интерес к центру. Начнем с того, как я приехал в Кыргызстан. С давних пор я интересовался наш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за рубежом. В восемнадцати странах насчитывается сорок один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 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эти центры есть и в таких странах как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и США, мне захотелось поработать в неизвестной для меня стране - Кыргызстан. Меня привлекло то, что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т именно здесь. Поэтому, пройдя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я прибыл сюда и работаю здесь уже 3 года.

- Какое впечатление произвел на вас Кыргызстан, и с ка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вы столкнулись в период адаптации?

- Я вырос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с такой жизнью знаком, поэтому у меня не возникло проблем с адаптацией. Я приехал сюда в феврале 2016 года и, когда увидел здесь местных корейцев, то по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как дома. Думаю, поэтому до сих пор я не сталкивался с больш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работая здесь.

- Рас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подробнее о самом центре...

- Мне всегда хотелось привить интерес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к языку, поэтому мы открыли группу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учеников младшей школы. Когда я вижу, как бабушка приводит своего внука в наш центр, то моя душа радуется. И, конечно, мне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молодежь тоже была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из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нашем центре среди слушателей насчитывается более 10 процентов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этот процент не снижался, а наоборот увеличивался, и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студентов ВУЗов, колледжей и старшекласников изуча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не так радостно, что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людей, видя меня здороваются со мной на корейском.

Коротко о центре. В нашем центре проводятся такие факультативы: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Всего в центре 50 групп, в которых обучаются 1670 студентов.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 это учащиеся начальной группы, так же у нас преподаются средний и высокий уровни, есть групп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ТОPIKu. Танцы и Самульнори (обучение игры на корейском народном инструменте) преподаются в Корейском народном доме, а таэквондо и компьютерные курсы можно изучить в нашем центре. Все это бесплатно. Желающих обучаться очень много, поэтому в планах у нас расширение территории центра. К слову, по Кыргызстану насчитывается 61 школа и 19 ВУЗов, где преподаютс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т нашего центра.

- И студентов, и школьников, а также их родителей интересует вопрос о стипенд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обучения в Корею. Существуют ли такие программы?

- Многие хотят поехать в Корею, платных программ существует достаточно. Но для стипендиатов, как правило, места ограничены. Есть программы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бакалавриата, магистратуры, аспирантуры: учеба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х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стипенд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от Академии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стипенд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обучения на бакалавриате, магистратуре и докторантуре,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я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Корею. Конечно у них свои критерии отбора.

- Каковы же критерии отбора?

-Первое требование – хорошая успеваемость в учебе, но этого недостаточно. Важно оставить предпочтение людям, которые могут сделать вклад в Корею и Кыргызстан. Это активисты, творческие люди, те, которые помимо учебы вносят вклад в общественную жизнь. Иначе говоря, предпочтение отдается по следующим критериям: успеваемость в учеб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громный плюс – знание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а также волонтерская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условия такие же. Как видите, е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и много программ от университетов. Недавно нас посет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ха. Была большая встреча. Некоторые, у кого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едут учиться за свой счет, но еще есть квоты от университета.

- Повторяются ли программы, и какие существуют квоты?

- В аспирантуре учебный год начинается с сентября, а для бакалавриата с феврал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о выделено 12 мест на магистратуру и 2 места на бакалавриат. Конечно,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что этих мест мало, н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это хорошие показатели.

- Эти программы рассчитаны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цев или в них мож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любой желающий?

- Для всех. Но для корейцев есть и другие программы. У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есть преимущества. Помимо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 существует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ют спонсорскую помощь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ограммам.

-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 На сайте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Бишкек.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здания центра есть доска объявлений. Кроме того, информацию могут предоставить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а также вся информация публикуется в газете «Ильчи».

- А если человек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но хочет учиться, вы сможете порекомендовать что-нибудь?

- Необходимо ставить цель. Есть программы,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можно поехать за свой счет или покрыть часть расходов. Мы можем предоставить о них информацию. Но хочу сказать, прежде чем приходить к нам за советом, заранее найдите в интернете информацию об интересующем вас ВУЗе и старайтесь не 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 свое внимание только на Сеуле. Ведь по всей Корею очень много хоро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Если вы придете к нам уже хоть с какой-то информацией, нам будет легче вам помочь.

- Познакомившись с нашей страной и ее менталитетом, как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вы бы порекомендовали, чтобы обучаться в Корею и в дальнейшем вернуться в Кыргызстан и продолжить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здесь? Как вы считаете, как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могут быть востребованы в Кыргызстане?

- Это довольно сложный вопрос. Есть популяр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такие как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Многие выбирают их. Но необходимо ставить цель и понимать, для чего я учусь на этом факультете. Я думаю, надо задумываться об этом еще с детства. По-моему, в Кыргызстане необходимо развивать туризм. Тенденции меняются – туристы едут отдыхать не только в развитые популярные страны, но и в малоизвестные места. Здесь людей привлекают, конечно, красоты природы, естественная окружающая среда, катание на лошадях, поход в горы.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развивать торговлю. Возможно, строить заводы, фабрики, чтобы вывозить товары на экспорт.

- Скоро Новый год по Восточному календарю – Сольналь. Это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для всех корейцев. Хотелось бы узнать как вы лично и ваша семья встречаете этот день. Может какие-нибудь пожелания от вас?

- В нашей стране самые большие праздники – это Сольналь и Чусок. В эти дни у всех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дома мы едим традиционный суп – Токкук. Так как в Кыргызстане это рабочий день, мы тоже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Но можно увидеть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уроченные к Сольналю,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ся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и школах, где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Поделитесь, пожалуйста, с нашими читателями своими планами на будущее...

- Я проработал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20 лет, затем 7 лет работал в Управлении образования. Планирую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в Корею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ать в этой сфере. Возможно поработать директором школы, чтобы быть поближе к школьникам. Также есть мечта со своими учениками вновь посетить Кыргызстан. Благодарю вас и желаю процветания газете «Ильчи».

-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хотелось бы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Центру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ыргызстане и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едь они делают столько много хороших дел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Выражаем благодарность самому директору центра, господину Мин Дже Шик, успехов и удачи вам в новом месте. Мы всегда будем ждать вас в Кыргызстане,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А м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 постоянной рубрике «Образование» будем стараться информировать о различных проектах.

«Пуленепробиваемый»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26 декабря 2018 года в стенах средней школы №2 г. Бишкек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Центром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вященный окончанию учебного семестра. В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не только сотрудники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но и учащиеся, имеющие высший уровень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Фестиваль назывался «Бантан Кёюгвон» (пуленепробиваемый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аналогии с популярной К-Поп группой «Бантан Сонёндан» BTS.

Программа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а из 2-х частей: культурно-языковой опыт и концерт. Всего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50 учащихся.

Первая часть мероприятия началась с совместн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и совместного обеда. Ученики научилис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готовить кимпчаб и другие корейские блюда.

После обеда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посетили 5 тематических зон: фотозона, песенная зона (караоке), зона для подделок своими руками, зо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игр и зон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каждой зоне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призы и подарки.

Затем была концертная часть, которую подготовили учащиеся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Выступили ученики группы самульнори (игра на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ах), ученики группы по традицион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танцам, группа таэквондо выступила с показательным номером, учащиеся группы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ыступили с корейскими народными и современными песнями, читали стихи, инсценировали сценк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конц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шло награждение отличников. 94 человека (по 2 человека из каждой группы), те, кто отличился во время учебы и получил самый высокий балл на экзамене по окончании семестра, получили грамоты и ценные подарки.

Из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осол Р.Корея в КР - Ха Тэ Ек,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Р.Корея в г.Бишкек - Мин Дже Шик,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миру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в КР - Джонг Жи Сон, директор Отдела образования Ленинского района г.Бишкек - Джунусова Айзада Самудиновна, директор СОШ №2 г.Бишкек Маразыкова Ч.Б.

**ПРОГРАММА ОБУЧЕНИЯ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КОРЕЕ НА 2019 ГОД**

Общие сведен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ончжу

Курсы, период и стоимость (валюта: корейская вона)

Курс	Период курса	Стоимость курса
Курс ознакомления с родиной (2 мес)	2019. 4. 2. ~ 5. 30.	1,354,000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курсы перед поступлением в ВУЗ (5 мес)	2019. 4. 2. ~ 8. 23.	3,385,000

Требования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курсы перед поступлением в ВУЗ: зарубежные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окончившие полное среднее или среднеспеци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Курс ознакомления с родиной: зарубежные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окончившие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и старше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Заявл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ной формы) с прикрепленной цветной фотографией 3*4
Учебный план (установленной формы)
Диплом об окончании последнего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или справка с места учебы
Табель успеваемости (оценки)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этническую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опия заграничного паспорта
Согласие на сбор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установленной формы)

Срок приема документов

До 11 февраля 2019г.

Место приема документов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Корея в г.Бишкек (ул. Орозбекова, 136), учебный отдел

Возможн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типендий: выплаты расходов за обучение, проживание и питание, 50% от стоимости авиаперелета и др.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ограмме и формы документов можно скачать на сайте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Р.Корея в г.Бишкек www.edubis.kg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второго семестра Корейской школы
по выходным в Бишкеке в 2019году.**

1. Время: 16 февраля 2019года – 25 мая (15 недель, по субботам 9.00)
2. Место: Аудитории «НореAcademy»
3. Обучение: Родной язык(корейский), математик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стория, коллективные занятия.
4. Оплата за обучение: 2500сом (1чел.), 4500сом (2чел.), 6000сом(3чел.)
5. Академический календарь: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речевой конкурс, экскурси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6. Другие: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9.00, 16 февраля) после регистрация.
7. Контакты: 0776-939768, 0778-243216.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Ильчи» приносит вам свои извинения за задержку и несвоевременность выхода очередного номера издания. Причиной тому послужило внезапное увольнение и поиск нового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газеты. Дальнейшая периодичность выхода «Ильчи» будет восстановлена и неизменна. Спасибо за понимание,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Ким Ю. В.



23 января 2019 года посл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й болезни ушел из жизни известный организатор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Почетный Член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 Чагай Валерий Петрович. На протяжении своей жизни Чагай В. П. был неутомимым тружеником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ыргызстан, являлся лидером движения, постоянным спонсоро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и люб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вдохновлял коллектив и всегда находил нужные решения. Мы выражаем искреннее сочувствие семье, детям, родным, супруге. Чагай

В. П. был заботливым отцом и дедом, чутким воспитателем и любящим мужем. Вечная и светлая память о Чагай В. П. навсегда сохранится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Президиум ООККР,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клуб ЧИНГУ, советники Президента

SUN CITY

Фитнес
Футбол
Тайквондо WTF
Zumba Fitness

ул. Шабдан Батыра / Менделеева 0 (312) 534972 | 0 (770) 534972

КРУГЛОГОДИЧНЫЙ
ЦЕНТР ОТДЫХА
«РАДУГА WEST»
ПРОДАЕТ ГОТОВЫЕ
КВАРТИРЫ И
КОТТЕДЖИ
ПОД КЛЮЧИ!!!

ОФОРМЛЕНИЕ
В РАССРОЧКУ

ЛУЧШИЕ ТЕРМАЛЬНЫЕ ИСТОЧНИКИ НА ИССЫК-КУЛЕ

Отдел продаж: 0701 53 99 11

М. Элобаев көчөсү, 60
Кыруу жаны "GOLDEN DRAGON"
Мейманканасынан

Тел.: +996 (312) 54-28-68
Моб.: +996 (770) 92-20-46

КАРАОКЕ

КОРЕЯ УЛУТТУК РЕСТОРАНЫ
GANG NAM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РЕЙСКИЙ РЕСТОРАН

Корейский ресторан
Чон Ги Ва

Бишкек, ул. Шапокова, 126
e-mail: kazbbl@hanmail.net

Тел.: 0312 62-36-23
Моб.: 0551 21-21-83

LEX Law Firm

ЮРИДИКАЛЫК КЫЗМАТТЫН БАРДЫК ТҮРЛӨРҮ
ВСЕ ВИДЫ ЮРИДИЧЕСКИХ УСЛУГ

Тыныстанов к., 189 «а», тел: +996(312)62-08-16 www.lex.kg

Ассорти Бухара

Азиатская кухня
в ее лучшем виде!

ул. Ибраимова, 705 (перес. Фрунзе), Тел.: 0555 300 200
ул. Ахунбаева, 45 (перес. Юнусалиева), Тел.: 0557 300 200
ул. Горького, 100 (перес. Элобаев), Курортостан, Тел.: 0558 300 200

Ассорти Бухара | Ассорти Бухара | assortibuhara

УЮТНОЕ КАФЕ
ВКУСНЕЙШЕЙ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КОРЕАНА

Кореана | koreana.kg | 0559 300-200

KIM'S
RESTO & KARAOKE

ЕСТЬ ПЕТЬ ОТДЫХАТЬ

Ресторан изысканной
корейской и европейской кухни!

kimsbishkek | ул. Юнусалиева 98/2
kims_bishkek | +996 552 54 22 22

Железобетонное
качество № 1

**ТАШ
ТЕМИР**

Продукция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м центром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KG417/02.ОСП.001) и отвечает всем
требованиям по качеству.

- ЖЕЛЕЗОБЕТОННЫЕ ИЗДЕЛИЯ
- БЕТОН, РАСТВОР, ОТСЕВ ДЛЯ БЕТОНА
- БРУСЧАТКА, ПЕСКОБЛОК
- СЕТКА «РАБИЦА», «МАК»,
АРМОКАРКАС
- ДЕКОРАТИВНЫЕ ЗАБОРЫ И ПЛИТКА

Горячая линия: +996(312) 56-54-91
Адрес: г. Бишкек, ул. Кулатова, 8,
тел. +996(312) 59-23-53

Ameli

10 ВИДОВ
ОРТОПЕДИЧЕСКИХ
МАТРАСОВ

ПО ЛЮБЫМ РАЗМЕРАМ
И ПРЕДПОЧТЕНИЯМ

Матросова 4, г. Бишкек
+996 501 300 800

AMELI_MATRAS
www.myameli.shop

Газета поставлена на учет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постановке на учет ГР № 002059 от 20.01.2006 г.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Ким Юрий
Валентинович тел.: 0(772)166555
Реклама: 0(779)109977

© ООК КР
Отпечатано в типографии:
Фонд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СМИ»
г. Бишкек, ул. Горького, 15
Периодичность: Два раза в месяц.
Заказ № 171. Тираж 2000
Адрес: г. Бишкек, ул. Горького, 3А
Тел.: (0312) 53-36-29.
e-mail: ilchinews@gmail.com

Газета «Ильчи» является обладателем
ежегодной газетной премии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газета-2009»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